

## 戈頌平의 『素問指歸』에 대한 考察 - 陰陽論을 중심으로 -

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金度勳 · 金鍾鉉 \*

### A Study on *Suwenzhigui*(素問指歸) of Ge Songping(戈頌平) - Focusing on Yinyang theory (陰陽論) -

Kim Do-Hoon · Kim Jong-Hyun \*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Ge Songping(戈頌平) was a medical doctor in Qing Dynasty during the late 19<sup>th</sup> century who annotated the original texts of four medical classics and wrote *Suwenzhigui* (素問指歸), *Shanghanzhigui*(傷寒指歸), *Jinkuizhigui*(金匱指歸), and *Shennongbencaojingzhigui* (神農本草經指歸). This paper's objective is to compile information about his writings, and shed a light on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his scholarly works.

**Methods** : Information regarding Ge Songping's life has been gathered through existing research papers and the sources revealed in the introduction. His works were divided into different formal characters as listed in part of the introduction and in the table of contents. Contents related to Yinyang(陰陽) found in *Suwenzhigui* were studied in order to discover his unique scholastic character. After selecting and analyzing three texts related to Yinyang, some characteristic terms and emphasized contents were studied.

**Results** : The review yielded knowledge about Ge Songping's life, the times of his publications, the meanings of the names of his books, and basic information about them. In terms of his scholarstic works, he used the ideas he gained from *Shanghanlun*(傷寒論) to form his medical theory, and used this to write annotations for four types of medical classics. The features of his theory of Yinyang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First, he coined the term Qiye(氣液) to bring contrast between yinyang as yinye(陰液) and yangqi(陽氣). Second, he shaped the temporal and spatial structure of the circulation of yinyang based on Shierdizhi(十二地支). Third, he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yin and yang while mainly focused on yangqi. Fourth, he explained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mechanisms while focused on the circulation of ascending and descending and the idea of mutual beneficiary.

**Key Words** : Ge Songping(戈頌平), *Suwenzhigui*(素問指歸), *Shanghanzhigui*(傷寒指歸), *Jinkuizhigui*(金匱指歸), *Shennongbencaojingzhigui*(神農本草經指歸)

## I. 序 論

戈頌平의 字는 直哉이며, 청나라 말기 江蘇省 일대에서 활동했던 醫家이다. 그는 주요 醫學經典을 註解하여 『素問指歸』, 『傷寒指歸』, 『金匱指歸』, 『神農本草經指歸』를 저술했다. 그가 주석한 경전들은 모두 한의학 이론체계의 근간을 형성한 서적들로 그것들을 다루지 않은 醫家는 없겠으나, 전면적 주석이 이루어진 경우 역시 드물다. 『素問』에 한정하더라도 81篇을 빠짐없이 해석하고 견해를 밝힌 사람은 王冰, 張介賓, 馬蒔, 高世祚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개인이 주요 의학 경전의 대부분을 주석한 것은 더욱 희귀한 사례이다. 과송평의 저술은 희소성뿐 아니라 시대적 특수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 그가 著作을 마친 1900년대 초는 비교적 최근이며, 淸代의 고증학 및 운병학 연구와 서양문물의 전래 등 다양한 학술, 문화적 요소가 혼합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송평과 그의 학술 사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몇 건의 醫籍目錄에 書名이 보고되었을 뿐이며, 현재 중국 논문 검색엔진(CNKI)에서 ‘戈頌平’으로 찾을 수 있는 결과는 총 3편에 불과하다. 郝俊紅<sup>1)</sup>, 張方毅<sup>2)</sup>, 王軍<sup>3)</sup> 등은 모두 과송평의 생애와 『傷寒指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물 및 서적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에 머물렀으며, 학문 내용을 연구 주제로 삼지는 않았다. 그마저도 대부분 影印本 해제의 내용과 서문을 토대로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傷寒指歸』 이외의 서적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처럼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그동안 원문에 대한 접

근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과송평의 저술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中醫古籍出版社가 2008년 長春中醫藥大學 소장의 필사본을 影印해 『戈氏研究叢書』를 발간하면서부터이다. 최근 『傷寒指歸』의 활자본이 출간된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활자본이나 파일 형태의 원문은 찾을 수 없다.<sup>4)</sup>

본 연구는 과송평의 학술사상 연구의 시작으로, 『素問指歸』에 드러난 陰陽論 분석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素問』과 陰陽論은 한의학 이론에 바탕이 되는 공통분모로 학술사상의 전반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으로 『素問指歸』 81篇 중 「上古天真論」, 「生氣通天論」, 「陰陽應象大論」에 보이는 특징적 논술을 분석했다. 首篇을 통해 전체적인 주석의 태도와 방향성을 살필 수 있고, 초반부에 주요 논점을 다루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上古天真論」을 선택했으며, 陰陽論 일반을 광범위하게 다룬 「陰陽應象大論」 역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序文에서 陽氣를 중시하는 관점을 피력한 것에 근거해 陽氣를 중점적으로 논설한 「生氣通天論」을 택하였다. 분석 과정 중에는 과송평의 나머지 3종의 저술을 일부 참고했다. 본격적인 내용 연구에 앞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과송평을 소개한 자료가 없으므로 인물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정리했다. 크게 과송평의 생애와 저술로 구분해 기술했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 각 서적의 서문, 목차 등의 형식적 특징을 근거 자료로 삼았다.

## II. 本 論

### 1. 戈頌平의 생애와 저술

#### 1) 생애

戈頌平은 19C 말 醫家로 字는 直哉이다. 海陵(泰州, 현재 江蘇省 泰州市) 사람이며,<sup>5)</sup> 『素問指歸』에 스스로 吳陵(吳縣)에서 序文을 지었다고 기록했다.<sup>6)</sup>

\*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82-31-750-8724  
Email : ultracode82@gmail.com  
Received(31 January 2017), Revised(15 February 2017), Accepted(16 February 2017)

1) 郝俊紅, 閔桂銀. 淸鈔本《傷寒指歸》研究.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09. 25(5). p.799.  
2) 張方毅 外 3人. 《傷寒指歸》述略. 中醫文獻雜誌. 2014. 2. pp.1-2.  
3) 王軍. 淸末醫家戈直哉及其《傷寒指歸》淺識.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2. 35(5). pp.309-327.

4) 『素問指歸』와 『神農本草經指歸』의 주석은 草書 형태로 남아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5) 張厚賢. 揚州藥學史料述要. 基層中藥雜誌. 2000. 14(1). pp.49-50.  
6)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 “光緒三十三年, 歲次丁未, 仲春, 五陵, 布衣直

생물연대는 분명치 않지만 몇 가지 사실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戈頌平 스스로가 『素問指歸』의 序文을 쓴 것이 光緒 33년(1907)이고, 그의 아들 仁壽가 『傷寒指歸·序文』(宣統 元年, 1909)을 지으면서 ‘先嚴’이라 표현했으므로<sup>7)</sup> 1907~1909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傷寒指歸·序文』과 같은 해에 쓰인 『神農本草經指歸·目錄』중에 “비록 古稀를 넘긴 연세였으나……”<sup>8)</sup>라 했으므로 출생은 1829~1838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여러 名醫들이 그러했듯 戈頌平은 가족의 病死를 겪으면서 의학에 뛰어들었다. 咸豐 5년(1855) 부친이 傷寒으로 사망했고, 몇 년 뒤 瘰癧과 痘病을 치료하지 못해 자녀 다섯을 잃었으며, 同治 5년(1866) 형과 어머니마저 병을 앓다가 사망하자 의학 연구에 매진하기로 결심한다.<sup>9)</sup> 그의 학문적 연원이나 사승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유학적 소양이 있었다는 것과 지역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그는 어려서 유학을 공부했으며,<sup>10)</sup> 스스로 『大學』의 ‘格物致知’ 정신에 바탕을 두고 醫學經典을 한 글자, 한 구절씩 풀이했다고 말했다.<sup>11)</sup> 『素問指歸』의 내용 중에는 高世栻의 『素問直解』를 인용한 것이 보이는데, 高世栻은 또한 張志聰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sup> 高世栻과 張志聰은 모두 蘇州, 杭州 지역의 醫家로, 戈頌平의 의학사상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戈頌平의 경전 연구는 당대에도 높은 평가를 받아, 사후 20여 년에 간행된

『泰縣誌』는 그가 吳縣에서 復古의 학풍을 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다.<sup>13)</sup> 뿐만 아니라 그의 저술에 실린 여러 지인들의 문장을 통해 그의 학풍이 당시 江蘇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지역 의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요컨대 戈頌平은 江蘇지역 의학 연구의 전통에 바탕을 두었으며, 다시 지역의 후배 의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2) 저술

현재 戈頌平의 저술로 알려진 서적은 『素問指歸』, 『傷寒指歸』, 『金匱指歸』, 『神農本草經指歸』 등 총 4종이다. 본 단락에서는 戈頌平의 저술과 관련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書名(指歸)의 의미, 편찬 시기, 각 서적의 특징, 판본 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 ① '指歸'의미

戈頌平은 『素問指歸·序文』에서 “내 집안에서 병난을 만나 죽어간 사람이 적지 않은데, 죽어간 사람들이 끝내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하였다. 이에 분하고 급히 여겨 출입을 막고 끊어, 밤낮을 한결같이 오로지 神農本草經, 素問經, 傷寒雜病論을 공부하였다.…… 세 책의 원문 밑에 처음 감히 해석하여 원래 이름의 아래에 ‘指歸’ 두 글자를 덧붙여 문하 선비들이 의지하여 돌아갈 곳을 두기를 기다린다.”<sup>15)</sup> 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指歸’가 ‘후배 의사들이 의지하여 돌아갈 곳을 가리킴’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돌아갈 곳’은 구체적으로 『素問』, 『神農本草經』, 『傷寒雜病論』이며, 戈頌平 스스로가 겪었던 의학적 난관을 經典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哉 戈頌平, 自識於問心書屋.”

- 7)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 “先嚴精究古訓方法, 追本窮源, 而攷驗人身陰陽五行, 有偏爲病.”
- 8)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神農本草經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 “雖年逾古稀, 而廢寢忘餐, 尤竭慮以研究, ……”
- 9)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傷寒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1.
- 10) 郝俊紅, 閔柱銀. 清鈔本《傷寒指歸》研究.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09. 25(5). p.799.
- 11)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傷寒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2.
- 12)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篇. 동양의학대사전(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421.

- 13) 張方毅 外 3人. 《傷寒指歸》述略. 中醫文獻雜誌. 2014. 2. p.1.
- 14)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傷寒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p.4-11.
- 15)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 “愚家遭病難, 損人不少, 所損之人, 終不解何病. 於是憤急屏節, 壹是日夜, 專攻神農本草經, 素問經, 傷寒雜病論, 積五十餘年, 就其心得, 診人之病, 屢驗不爽. 三書原論下, 始敢釋之, 原名下, 增指歸二字, 俟門下士, 有所依歸焉.”

Fig. 1. Ge Songping 『Suwenzhigui』 (戈頌平『素問指歸』)



陰陽應象大論第五篇  
黃帝曰陰陽者天地之道也萬物之綱紀變化之父母生殺之本始神明之府也治病必先求於本故積陽為天積陰為地陰靜陽躁陽生陰長陽殺陰藏陽化氣陰成形寒極生熱熱極生寒寒氣生瀉熱氣生清清氣在下則生瀉池濁氣在上則生脹脹此陰陽反作病之逆從也  
天覆地載陰陽藏於其中陰得陽則生於裏陽得陰則生於表黃帝曰陰陽者天地之道也陰陽藏於土中開闔之  
素問指歸 陰陽

右外內事物法理於四方曰事物之綱紀欲求之陰陽物  
證於土中以生証據自前而後謂之變毒及之陰陽物出  
於土中以生証據自右而左謂之化曰文化之父母生殺  
本始即一陽二陰左則右降生聚收証之理也曰生殺之  
本始者証據也陽以陰化而於陰藏之表陰以陽化而於  
陰藏之裏曰神明之府也此所謂之在陽在陰之在陰在  
陽於外為天覆陰於內為地曰和氣陽為天陰陰為地陰

있다. 그는 새로운 처방이나 약물을 구하기보다 근원이 되는 경전을 의지 삼아 귀의하려 하였으며, '指歸'는 그러한 방향성을 드러낸다.

② 편찬 시기

저작과 편찬 시기는 서문을 통해 일부 유추할 수 있다. 『傷寒指歸·自識』에는 '光緒十一年, 歲次乙酉'라 했는데,<sup>16)</sup> 이를 통해 1885년에 『傷寒指歸』의 저술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素問指歸』의 서문은 '光緒三十三年'(1907)에 쓰였으며, 『金匱指歸』와 『神農本草經指歸』에는 自序가 없다. 한편 『傷寒指歸』, 『神農本草經指歸』, 『金匱指歸』에는 아들 仁壽가 남긴 서문이 있는데 모두 '宣統元年'(1909)으로 기록했다.<sup>17)</sup> 이는 부친의 사망 이후 생전의 저술을 피내면서 남긴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傷寒指歸』의 저술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며, 말년에 나머지 저술들을 정리하던 중 『素問指歸』를 먼저 완료하였고, 『神農本草經指歸』와 『金匱指歸』의 작업이 진행

되는 사이에 과송평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③ 서적별 특징

4종의 서적 모두 經典의 句文을 기록하고 자신의 해석을 해당부분의 아래에 기록하는 逐句解釋 형식을 취했다. 목차 구성이나 문장의 대부분은 원형을 유지했다. 『素問指歸』와 『본초지귀』의 경우 원문은楷書로 쓰고, 주석은 草書로 써서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sup>18)</sup> 각 서적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素問指歸』

과송평은 『素問指歸』를 서술하면서 『素問』 81편의 구절 하나하나를 모두 풀이하려 하였다. 문장 중에는 『莊子』의 표현을 사용함과 동시에 현대 중국어에 가까운 구어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素問直解』를 인용한 것이 눈에 띈다. 인용 사실

16)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傷寒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3.

17) 『素問指歸』에도 별도의 서문이 존재하며, 내용으로 보아 戈仁壽가 쓴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도에 대한 기록은 없다.

18) 이 부분에 있어서는 4종의 형식이 일치하지는 않는데, 저술 당시에 이러한 형식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필사 과정에서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素問指歸』의 경우 篇에 따라 글씨체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보아 여러 사람이 작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문장을 대조해 본 결과 직접 인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19)</sup> 인용은 주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경우에 하였으며, 기전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관점을 서술했다. 살펴본 내용 중에는 「上古天真論」에 가장 많은 인용이 보이는데 黃帝와 岐伯에 대한 기록, 聖人이나 至인에 관한 설명 등이 해당된다. 자신의 이론을 피력하되, 스스로 고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의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 형식은 그대로 인용한 경우와 편집해 기록한 경우가 모두 보인다.

㉠ 『傷寒指歸』

과송평은 “是則諸家之書，雖汗牛充棟，皆不如傷寒雜病論之十六卷也。”<sup>20)</sup>라 하여 여러 의서 중 仲景書를 가장 중요히 여겼으며, 『傷寒』, 『金匱』에 처음 주석을 달아 풀이한 이후로 20년 간 열세 번에 걸쳐 원고를 수정했다.<sup>21)</sup> 실제로 卷首에 기록한 「表裏陰陽六經圖」와 「表裏陰陽六經圖說」은 과송평이 의학을 풀이하는 기본 틀이며, 『傷寒論』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이라 기록했다.<sup>22)</sup>

구성의 특징은 서문으로 볼 수 있는 「自識」 외에도 閔序, 陸序, 李序, 王序, 劉序가 있는데, 이들은 1907년 『傷寒指歸』를 편찬할 때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책의 맨 처음에 「表裏陰陽六經圖」, 「表裏陰陽六經圖說」을 첨부하고, 이어서 「讀法十五則」을 서술하여 仲景書의 개략적 내용과 공부 방법에 대해 논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육경변증을 설명하기 전에

「分之分兩升尺與漢異同考」, 「陳修園先生醫病順其自然說」, 「程郊倩先生原序解」, 「徐靈胎先生叙」, 「鍼灸刺說」, 「陰陽大論」을 기술했다. 본 내용에서 太陰病과 少陰病은 하나로 묶어 「太陰少陰篇」으로 기술했지만 조문 내용은 같다. 『傷寒論』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辨霍亂病脈證并治」, 「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證并治」는 빠져있으며, 빠진 부분은 『金匱指歸』에 수록되어 있다.

㉡ 『金匱指歸』

『金匱指歸』에는 『傷寒指歸』에서 빠진 후반부 내용이 卷一의 「霍亂篇」과 「辨陰陽易差後勞復證」에 기록되어 있다. 반면 『金匱要略』 후반부의 「雜療方」, 「禽獸魚蟲禁忌并治」, 「果實穀菜禁忌并治」는 빠져있으며, 나머지는 본래의 구성과 같다. 주석은 중경의 원문을 설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조문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sup>23)</sup>

㉢ 『神農本草經指歸』

『神農本草經指歸』는 약물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하여 『神農本草經』의 체계를 따랐다. 약물의 수는 보다 소략한데 상품 75종, 중품 35종, 하품 18종만을 기록했으며, 별도로 「附錄」을 설정하여 30종의 약물을 기록했다. 上中下品에 배속된 약물은 『神農本草經』과 거의 비슷하나 약간의 출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약물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약재를 사용한 경험과 약성에 대한 인식을 덧붙였다.<sup>25)</sup>

④ 판본 현황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과송평의 저술 서적은 table 1.과 같다. 보고 문헌에 기록된 서적들의 卷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판본이 존재

19) 예를 들면, 「上古天真論」의 도입부에 주석한 “史臣叙黃帝素問，而先爲紀述之。黃帝性公孫，有熊國君，少典之子。……帝鑄鼎於鼎湖之山，鼎成登天。群臣攀龍髯而莫及也。”는 문장이 『素問直解』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사실 高世栻이 王冰의 주석을 인용한 부분인데, 구절의 배열이 王冰의 것과 다르고, 밑줄 친 부분은 『素問直解』에만 보이며 王冰의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高世栻. 黃帝素問直解(第三版).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1. p.1.)

20)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2.

21)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4 “今君解傷寒金匱二十餘年，易十三稿，功則苦矣.”

22)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傷寒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4. “六經病解，有十二辰爲據，余因列之爲圖，並著一說，以爲初學之津梁，而解此書，亦有所依據焉.”

23)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素問指歸·內容提要)

24) 예를 들어, 尊解는 『神農本草經』에서 中品에 속하지만 「附錄」에 기록했다.

25)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素問指歸·內容提要)

26) 吳考槃. 續江蘇醫著. 南京中醫學院學報. 1984. 3. p.34.

27)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Table 1. Detail of Reported Gesongping works.

보고 문헌	연도	내용
續江蘇醫著 <sup>26)</sup>	1984	『傷寒指歸』 6권, 『金匱指歸』 4권.
中國歷代醫家傳錄 <sup>27)</sup>	1991	『傷寒指歸』 6권, 『傷寒雜病論金匱指歸』 10권.
中國醫籍通考 <sup>28)</sup>	1993	『仲景傷寒指歸』 6권, 『金匱指歸』 10권, 『黃帝素問指歸』 81편, 『神農本草經指歸』 5권.
揚州藥學史料述要 <sup>29)</sup>	2000	『神農本草經指歸』 5권, 『素問指歸』 81권.
戈氏醫學叢書 <sup>30)</sup>	2008	『素問指歸』 9권, 『傷寒指歸』 10권, 『金匱指歸』 10권, 『神農本草經指歸』 4권(부록 1권).

할 것으로 추측되며, 계속해서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張方毅 등에 따르면, 『素問指歸』는 현재 3종의 판본이 존재하는데 각각 稿本, 鈔本, 歸鈔本으로 불린다.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며 옳기는 과정에서 글자의 착오나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1)</sup>

## 2. 『素問指歸』의 陰陽論 분석

陰陽論은 한의학 전반에 통용되는 이론이다. 따라서 陰陽論에 대한 과송평의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대체적인 학술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단락에서는 「上古天真論」, 「生氣通天論」, 「陰陽應象大論」에 보이는 특징적 논술을 중심으로 戈頌平의 관점을 분석했다. 검토 과정에서 과송평이 논설한 陰陽이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이며, 陰陽의 변화규율은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것을 특징적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 1) 陰陽氣液

陰陽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음과 양으로 표현되는 대상이 고정적이지 않다. 때문에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혼동될 수 있다. 기존에 흔히 쓰이지 않던 대상을 음양으로 표현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戈頌平은 『素問指歸』에서 ‘氣液’을 주요 용어로 활용함과 동시에 음양 속성을 부여했다. 이전까지 氣液은 주로 道家 계열의 문헌에서 활용되었던 개념으로 의학에서는 상용되지 않았다. 『黃帝內經太素』와 같은 일부 저술과 劉河間이 玄府氣液說을 세워 火熱病機의 설명에 이용한 정도를 볼 수 있을 뿐이다.<sup>32)</sup> 확인한 본문 내용 중 기억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몇 가지 언급을 통해 의미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陰陽氣液，動於東方，以引出萬物，曰神在天爲風…… 木得陰陽氣液，發榮於表，其色青蒼，曰在色爲蒼…… 陰陽氣液，動於東方，物觸地而出戴芒角也，曰在音爲角…… 陰陽氣液，動於東方，息於外，曰在聲爲呼……” (素問指歸·陰陽應象大論)<sup>33)</sup>

위 문장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陰陽氣液의 운동을 통해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東方에서 陰陽氣液이 發, 動함에 따라 木性을 가진 氣, 色, 音, 聲이 차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음양기액은 변화

1991. p.144.

28)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藥大學. 1993. p.5532.

29) 張厚寶. 揚州藥學史料述要. 基層中藥雜誌. 2000. 14(1). p.49.

30)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31) 張方毅 外 3人. 《傷寒指歸》述略. 中醫文獻雜誌. 2014. 2. p.2.

32) 신상원. 太陰人 氣液 機轉 개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pp.47-55.

33) “岐伯對曰 東方生風，風生木，木生酸…… 在聲爲呼，在變動爲握，在竅爲目，在味爲酸，在志爲怒.”에 대한 주석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36.)

를 일으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자연계와 인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如陽氣蔽塞於上，陰液蔽塞於下者，當輪轉在下之陰液，濟在上陽氣，歸藏於土。”(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34)</sup>

이 문장은 陽氣와 陰液이 上下로 폐색된 병증을 설명했다.<sup>35)</sup> 『素問指歸』에서 ‘陰陽氣液’은 대부분 하나의 용어처럼 쓰였으나 이 경우와 같이 ‘陽氣’와 ‘陰液’의 관계로 설명한 용례가 더러 있다. 따라서 陰陽氣液은 陽氣와 陰液의 통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송평의 첫 번째 저술은 『傷寒指歸』이며, 序文 등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傷寒論』이 그의 학문적 뿌리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傷寒論』에서와 마찬가지로 陽氣-津液으로 陰陽을 설정하지 않고 陽氣-陰液으로 대비시킨 까닭은 무엇이며, 陰液은 진액과 다른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晷日，天地陰陽氣液，交蒸於午火，雨時行，人身陰陽氣液，應乎天地交蒸之當，大汗時出。”(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36)</sup>

저자는 위 문장에서 天地의 음양기액 변화를 통해 人身의 음양기액 변화를 유추했다. 맑은 더운 날 천지의 음양기액이 끊어올라 극에 달하면 비가 되어 내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구분해보면, ‘더운 날(晷日)’은 熱, 즉 陽氣의 작용을 의미하고 그 결과

드러나는 비와 땀은 陰液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므로 陽氣는 변화의 원인에 해당하며, 陰液은 땀의 質인 津液을 가리키거나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心，土藏也。苦，主降，火炎上而苦降之，則土生，曰苦生心。血爲陰，土藏之陰，得陽則生，曰土生血。”(素問指歸·陰陽應象大論)<sup>37)</sup>

“人心屬火，亦是土中陽氣也。”(素問指歸·陰陽應象大論)<sup>38)</sup>

“目得陽而開，得陰而明。陰陽氣液，動於東方，外開於目，曰在竅爲目”(素問指歸·陰陽應象大論)<sup>39)</sup>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은 心에 관해 설명했는데, 같은 篇에서 土와 火에 모두 배속한 것이 눈에 띈다. 내용에 따르면 心은 土藏이며, 血은 土의 陰이다. 반면 血을 운행하게 하는 陽氣는 心火이다. 즉 土藏과 火藏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는 血의 저장과 추동 중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달렸다. 역으로 心은 血을 담고 있기 때문에 土에 배속되며, 血은 土中的 陰이거나 그것의 일부이다. 세 번째 문장에 따르면 음양기액이 東方에서 動함에 따라 밖으로 인체에서는 눈으로 開竅한다. 눈을 뜨는 것은 陽의 작용이고, 시력(明)을 얻는 것은 陰의 작용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고 깨는 것은 陽氣의 운행에 따르며,<sup>40)</sup> 시력을 얻는 것은 血의 작용이다.<sup>41)</sup> 따라서 ‘得陰而明’의 陰은 血을 의미한다. 위의 두 문장에서 陰液은 血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34) “故陽畜爲之積病死，而陽氣當隔，隔者當死，不亟正治，粗乃敗之”에 대한 주석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0.)

35) 치법으로 폐색된 하부의 음액을 운행하고 상부의 양기를 다스려 土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부의 폐색된 양기를 ‘돌려보낸다(歸)’라 한 것으로 보아 양기의 근원은 ‘아래(下)’이며, ‘土’를 가리킨다. 반면 하부에 폐색된 음액을 운행(輪轉)시켜야 한다고 했으므로 상승이 음액의 정상적 운행방향이다. 음액이 하부에 머무는 까닭은 양기와 분리되어 동력을 잃은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36) “因於暑，汗煩則喘喝，靜則多言，體若燔炭，汗出而散。”에 대한 주석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6.)

37)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37.

38)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44.

39)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36.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24.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靈樞·衛氣行)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9. “諸脈者皆屬於目 … 肝受血而能視”(素問·五臟生成)

“春氣應溫不溫，其陽損去，脾土陰液陷而不升，至巳午時，陽氣偏浮，半表上留連，巳午不闔半裏，半裏下陰無陽舉而疾流下泄……秋氣應涼不涼，其涼損去，暑氣不收，水隨陽氣浮半裏上，至戌亥時，寒威外束亥水之陰，欠藏其水，沮礙氣道，爲痰飲。”(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42)</sup>

“萬物之陰，皆藉一陽純陽大氣，運轉土中，生萬物於表，成萬物於裏，陰陽互相資益，合乎天地。”(素問指歸·序文)<sup>43)</sup>

첫 문장은 봄과 가을에 溫涼의 부적절로 인한 洞泄과 痿厥의 발생기전을 설명했다. 봄에 양기가 손상되면 脾土의 음액이 상승하지 못하므로 下泄하게 되고, 가을에 暑氣가 수렴되지 못하면 水가 半裏上<sup>44)</sup>에 머물러 痰飲이 된다. 이 과정에서 升降의 1차적 문제는 ‘陽’과 ‘暑氣’의 升發과 收斂이지만 이에 따라 실제로 운행하거나 정체되는 것은 陰液과 水이다. 陰液은 水와 같거나 비슷한 범주로 볼 수 있으며, 陽氣의 推動에 따라 실제로 움직이는 質을 가리킨다. 두 번째 문장은 陰이 陽氣에 의지하여 土중에 운행하면 만물이 生成됨을 설명했다. 生은 發現을 말하며 成은 物이 형질을 이룬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陰과 陽의 관계는 변화의 동력과 형질의 생성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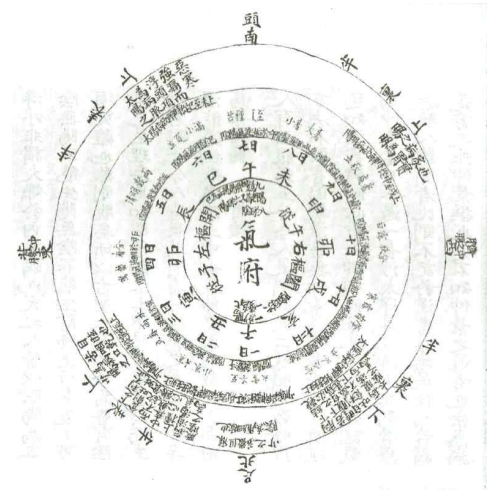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검토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戈頌平이 말한 陰陽氣液은 陽氣와 陰液의 총칭이다. 양기는 음액을 추동하고, 음액은 실제로 움직이는 형질이 됨으로써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짝이 된다. 陰液은 형질과 유동성을 가진 형질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인체에 국한하면 津液, 血, 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津과 液을 비교하면 液은

비교적 유동성이 적고 유형화된 것을 가리키며, 津은 유동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氣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sup>45)</sup> 따라서 과송평이 ‘陽氣’의 상대로 ‘陰液’을 설정한 것은 운동변화의 원동력과 실체가 드러나는 형질로써 음양을 대비시키고자 하는 관점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 2) 陰陽循環의 구조

음양론은 만물을 둘로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음양의 운동과 상호 전환관계를 설명한다. 과송평은 十二地支 기준의 순환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음양변화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는 ‘半表上’, ‘半裏下’, ‘左開’, ‘右闔’과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傷寒指歸』의 「表裏陰陽六經圖」와 그것을 해설한 「表裏陰陽六經圖說」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2. 『Shanghanzhigui·Biaoliyinyang liujingtu』 (『傷寒指歸·表裏陰陽六經圖』)



전체적으로 子~亥에 ‘一日’부터 ‘十二日’까지의 날짜가 배속되었다. 나누어보면 子~巳는 一陽~六陽, 午~亥는 一陰~六陰에 해당한다. 날짜를 중심에 기

42) “是以春傷於風，邪氣留連，乃爲洞泄。…秋傷於濕，上逆而效，發爲痿厥。”에 대한 주석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2.)

43)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

44) 半表, 半裏의 문제는 다음 단락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表裏, 內外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45) 朴贊國. 藏象學. 경기도 성남. 성보사. 2008. p.71.

재한 것은 「表裏陰陽六經圖」에 담긴 개념들이 『傷寒論』 六經病의 「欲解時」를 기준으로 착상한 것이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는 『傷寒指歸·自識』에서 六經病解의 시간 배속을 근거로 圖와 說을 지었다고 밝혔으며,<sup>46)</sup> 실제로 자신이 설정한 이론에 따라 육경변증의 분류 기준을 설명했다.<sup>47)</sup>

‘半表上’, ‘半表下’, ‘半裏上’, ‘半裏下’는 「表裏陰陽六經圖」에 보이는 가장 특징적 표현이다. 나눠볼 때 좌측과 우측은 각각 半表와 半裏에 해당하고, 이를 다시 上下로 구분했다. 중앙에는 ‘從子左樞開’, ‘從午右樞闔’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이에 따르면 子~巳(半表)는 점차로 열리는 과정이며 午~亥(半裏)는 닫히는 과정에 해당한다. 開闔은 半表와 半裏가 교차하는 변곡점에 해당하며 그 외의 시간은 모두 ‘樞開’와 ‘樞闔’의 단계이다. 즉 과송평이 제시한 半表는 發散, 半裏는 收斂의 과정이며 음양운동의 방향성을 표현한 것이다. 다시 上下로 다시 구분한 것은 현상이 드러나는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四象의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구조가 『素問』의 해석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女子以子爲主，子，一陽也，一變而爲七。……水，由子至午，一變而爲七，其水得午正之陽化，成形而爲血，未成形之水，由午之七數後，歸藏土中。”(素問指歸·上古天真論)<sup>48)</sup>

“丈夫以亥爲主，亥，六陰也，根核也。亥水之陰，得陽氣，正於八，丈夫八歲，陽中得

陰而氣強髮長，陰中得陽而氣實齒易。”(素問指歸·上古天真論)<sup>49)</sup>

위 문장은 「上古天真論」에서 남녀의 신체 변화를 七數와 八數로 설명한 것에 대한 과송평의 해설이다. 七數와 八數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表裏陰陽六經圖」에 기록한 十二地支를 시간에 적용한 예시이다. 내용에 따르면 여자는 子水, 남자는 亥水를 주로 삼는다. 水는 子에서 午에 이르면 一變하여 七이 되고 ‘午正’의 陽化를 얻어 形을 이룬다. 亥는 陽氣를 얻어 八에서 ‘正’하게 되니<sup>50)</sup> 음양이 서로 얻어 터럭이 자라고 이를 같게 된다. 午는 子水와 亥水로부터 각각 七步와 八步가 되는데, 이 문장을 통해 과송평이 「表裏陰陽六經圖」의 十二地支를 음양이 변화하는 시간적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이론에서 七·八數는 주로 少陽數와 少陰數로 설명되었다. 王冰은 여자는 少陰의 기운이므로 少陽數와 짝이 되고, 남자는 少陽의 기운이므로 少陰數와 짝이 된다고 설명했으며,<sup>51)</sup> 張介賓은 여자는 陰體이지만 안으로 陽數에 합하고 남자는 陽體이지만 陰數에 합한다고 설명했다.<sup>52)</sup> 과송평 역시 단락의 끝에 기존의 설을 인용하여 “蓋陽數窮於九則退，而生少陰之八，陰數窮於六則進，而生少陽之七，七八陰陽始之數也。”<sup>53)</sup>라 기록했다. 이는 자신의 견해를 주장함에 그치지 않고, 기존 해석에 대한 언급을 남김으로써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6)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傷寒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4. “六經病解，有十二辰爲據，余因列之爲圖，並著一說，以爲初學之津梁，而解此書，亦有所依據焉。”

47)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傷寒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5. “陰得陽，則從子辰樞開半表，陽得陰，則從午辰樞闔半裏，表裏陰陽開闔樞利，謂之無病。如陽氣先陰開於子辰，陽失陰固，則浮半表，曰太陽病。陽得陰則明，得陰則闔，陽失陰，則不明不闔，曰陽明病。陽得陰，則樞轉半裏利，陽失陰，則樞轉半裏滯，曰少陽病。陰得陽則開，陰失陽開，曰太陰病。陰得陽開，則樞轉半表利，陰失陽開，則樞轉半表滯，曰少陰病。陰得陽則開，陽得陰則闔，陰失陽開，其陰則闔而不開，曰厥陰病。”(傷寒指歸·表裏陰陽六經圖說)

48)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6.

49)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7.

50) ‘正’은 午에 이르러 음양이 相得하여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 張登本, 孫理軍 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王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 “老陽之數，極于九，少陽之數，次于八，女子爲少陰之氣，故以少陽數偶之，明陰陽氣和，乃能生成其形體，……老陰之數，極于十，少陰之數，次于八，男子爲少陽之氣，故以少陰數合之。”

52) 張介賓 著. 張氏類經.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62. “故女子外爲陰體，而內合陽數，男子外爲陽體，而內合陰數。”

53)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7.

“半裏之陰得陽氣，則布半表，外榮筋脈肌肉，半表之陽得陰液，則布半裏，內榮骨髓五藏……” (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54)</sup>

위 문장은 陰陽이 表裏로 운동함에 따라 인체의 각 부위가 영양되는 원리를 설명했다. 半表半裏, 陽氣陰液의 생소한 용어를 사용했으나 裏陰이 상승하여 表部를 기르고, 表陽이 수렴되어 裏部를 기르는 과정을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과송평은 半表와 半裏를 升發, 肅降의 과정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체의 부위를 나타내는 공간적인 술어로 사용했다.

“太陽大氣從子左開，由足心湧泉穴，循足肚，上腰脊，至巔頂百會穴，得地之水氣，助陽氣，外榮半表，則爲春夏。太陽大氣，從午右闔，由巔頂百會穴，循鼻端，下胸腹，至腿脛，足心湧泉穴，得天之金氣，固陽氣，內榮半裏，則爲秋冬。” (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55)</sup>

위 문장은 太陽大氣의 승강을 말했다.<sup>56)</sup> 족심으로부터 머리끝까지 인체 背面으로 상승해 前面部로 하강한다. 순행부위는 전후면의 중앙부위로 足少陰脈-足太陽脈, 任督脈과 유사하다. 湧泉에서 百會로 상승하는 것을 ‘從子左開’라 하였고, 반대를 ‘從午右闔’이라 하여 氣의 升降과 인체의 上下 또한 「表裏陰陽六經圖」의 구조로써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

### 3) 陽氣爲主의 인식

54) “是以聖人陳陰陽，筋脈和同，骨髓堅固，氣血皆從。如是則內外調和，邪不能害，耳目聰明，氣立如故。”에 대한 주석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p.20-21.)

55) “開闔不得，寒氣從之，乃生大僕，陷脈爲癭，留連肉腠，愈氣化薄，傳爲善畏，及爲驚駭，營氣不從，逆於肉理，乃生癰腫，魄汗未盡，形弱而氣燄，穴俞以閉，發爲風癩。”에 대한 주석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p.18-19.)

56) ‘太陽大氣’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元氣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人爲萬物之靈，稟五行之氣，無不依附天之一陽大氣以生。一陽，太陽也。…… 一陽，陽氣藏於冬，爲春生之徑，陽氣生於春，爲夏長之徑，陽氣長於夏，爲秋收之徑，陽氣收於秋，爲冬藏之徑。…… ” (素問指歸·序文)<sup>57)</sup>

과송평은 저술 전반에서 양기의 운동을 生病理의 관건으로 지목하였다. 발췌한 문장에 따르면, 인간의 生은 하늘의 一陽에 의존하며 자연계의 변화 역시 양기의 生長收藏을 따른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陰은 陽氣의 운동을 바탕으로 만물을 생성한다고 하여 陽氣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양기의 운동을 설명하면서 ‘太陽’, ‘大氣’, ‘一陽’과 같은 표현을 병용했는데, ‘一陽’은 天으로부터 부여받은 陽을 의미하고 ‘太陽’과 통한다. ‘大氣’는 아주 보편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黃帝內經』에 이미 등장하며,<sup>58)</sup> 喻昌이나 張錫純과 같은 清代 醫家들이 사용한 예가 있다. 특히 동시대 인물이라 할 수 있는 張錫純은 大氣를 宗氣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한 바가 있어서,<sup>59)</sup> 당시 어느 정도 통용되던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大氣를 胸中之氣로 인식하고 呼吸과 관련해 설명했던 장석순의 이론과 달리, 과송평은 一陽으로부터 발원해 전신을 유행하는 氣를 통칭했던 것으로 보이며, 元氣나 正氣의 의미에 근사하다고 볼 수 있다.

“陰得陽生爲春，陰得陽長爲夏，陰得陽收爲秋，陰得陽藏爲冬，皆有常理。” (素問指歸·陰陽應象大論)<sup>60)</sup>

57)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

58) ‘大氣’는 『黃帝內經』에 총 13군데 등장한다. 金亨泰 등은 논문에서 『黃帝內經』에 쓰인 大氣의 의미를 大邪之氣, 자연계의 外氣, 胸中之氣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金亨泰, 尹暢烈, 張錫純의 大氣論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1. 14(2). pp.7-8.

59) 金亨泰, 尹暢烈, 張錫純의 大氣論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01. 14(2). p.9.

60) “帝曰 余聞上古聖人，論理人形，列別藏府，端絡經脈，會通

“五，土數也，三，陽數也。土生於火，曰其生五，其氣三。犯，勝也。此指五生於火也，土之陰，數數勝其火，則偏陰以害陽火，土之氣，乃人身受命之本也。”(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61)</sup>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春夏秋冬은 陰이 陽의 生長收藏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계절 변화는 양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生氣通天論」의 “其生五，其氣三，數犯此者，則邪氣傷人，此壽命之本也.”에 대한 주석이다. 五와 三이 각각 土와 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土中の 陰이 陽을 범하게 되면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사람의 태어남이 五行에 기반하고, 이후로는 三數로서 氣의 變化를 겪는다는 기존의 해석<sup>62)</sup>과 다른 독특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과송평은 주석 전반에서 地中陽氣의 상승을 生命의 원동력으로 강조했는데, 위 문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傷寒指歸·自識』에서 火熱病의 대부분의 火가 치성한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갈무리되지 못하여 밖으로 浮越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양기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경계하였다.<sup>63)</sup>

#### 4) 陰陽調和의 강조

六合，各從其經。氣穴所發，各有處名，谿谷屬骨，皆有所起，分部逆從，各有條理，四時陰陽，盡有經紀，外內之應，皆有表裏，其信然乎.”에 대한 주석의 일부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36.)

61)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p.15-16.

62) 王冰은 “言人生之所運爲，則內依五氣以立，然其填塞天地之內，則其應三元以成。三謂天氣地氣運氣也.”라 하였고(張登本, 孫理軍 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王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3.), 張介賓은 “人生雖本乎陰陽而稟分五行，其生五也。陰陽盛衰，太少有三，其氣三也.”라 하였다.(張介賓 著. 張氏類經.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268.)

63)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傷寒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2-13. “陽氣爲萬世根基，天地爲萬世鑄冶，鑄中無火則寒，五穀能熟否，竈中無火則寒，飯能熟否，火宜藏不宜見，藏則陰土液生，見則陰土液竭，天地陽氣不藏，則五穀病，人身陽氣不藏，則五臟病。經云人之傷於寒也，則爲病熱，至眞要大論篇中，火熱病去八九，風寒濕各居其一，與雜病論中所言火字熱字風字，皆謂陽氣浮外，非謂火燦於內爲病也.”

음양론을 의학에 적용함에 있어 가장 주요한 주제 중 하나는 순환이다. 음양의 순조로운 운행은 생을 영위하는 바탕이며 그 반대는 病과 死를 의미한다. 때문에 『黃帝內經』을 비롯한 역대 모든 의가들은 인체의 음양 순환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과송평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인체 생리를 설명함에 있어 陰陽相得을 중시하였으며, 陰陽의 편중과 분리를 주요 병인으로 인식했다.

“陽性剛，陽得水之陰精柔之，其陽從子左引而上伸，則生形中之神。陰性柔，陰得火之陽精剛之，其陰從午右引而下降，則生肉中之力。”(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64)</sup>

위 문장은 “陽氣者，精則養神，柔則養筋.”에 대한 주석이다. 이 문장은 일반적으로 양기가 정미로움과 부드러움에 따라 神과 筋을 기르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예를 들면, 張介賓은 “神의 靈通한 變化는 陽氣가 精明한 것이고, 筋의 運動이 便利한 것은 陽氣의 柔和이다.”라고 설명했다.<sup>65)</sup> 반면, 과송평은 陰陽이 서로를 얻어 神과 形(筋)을 기르는 과정으로 서술했다. 陽은 성질이 剛한데 陰의 柔한 작용을 얻으면 子로부터 上申하여 形 중에 神을 생하고, 陰은 성질이 柔한데 火의 剛한 작용을 얻으면 午로부터 下降하여 形이 힘을 얻게 된다. 陰陽이 상반된 성질을 얻음으로써 升降이 유지되고 그 결과로 形神이 함께 길러짐을 설명한 것이다.

“膏粱厚味屬陰。暑月，陽氣在上多，若厚味過度，則陰氣甚於裏，三陰絡中陰少陽化，陰液凝滯在絡，致足生大疔。”(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66)</sup>

“食，陰也……飽食則陰勝於陽，陽氣寄

64)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8.

65) 張介賓 著. 張氏類經.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p.270.

66) “高粱之變，足生大疔，受如持虛。勞汗當風，寒薄爲皴，鬱乃痤.”에 대한 주석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4.)

上, 不藏於下, 陰失陽舉, 陰氣陷下, 筋脈橫開.”(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67)</sup>

앞서 陰陽이 相得하는 생리와 반대로 偏重에 의한 病의 機轉을 설명했다. 공통적으로 음식과 관련되는데, 膏粱厚味와 과식은 모두 陰에 편중된 病機를 유발한다. 첫 번째는 厚味로 陰이 裏에 편중된 경우이며, 이때 陽氣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陰液이 정체되어 발에 大疔이 발생한다. 과식으로 陰이 陽을 이기면 陽은 수렴되지 못해 상부에 머물고, 수렴된 陽氣의 上升之力을 얻지 못하는 陰은 下陷되므로 근맥이 풀어지게 된다.

“陰得陽則生陽氣, 不從午未內闔陰土, 陰失陽生, 則形體衰弱, 面色有光…… 陽氣浮外, 不從午未內闔, 從子丑外開, 穴竅虛之以閉.”(素問指歸·生氣通天論)<sup>68)</sup>

위 문장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陰은 陽을 얻어 陽氣를 낳는데, 만약 午未로부터 陰土로 內闔하지 못하면 음이 양을 낳지 못해 형체는 쇠약해지고 면색은 빛이 난다…… 양기가 밖으로 떠서 수렴되지 못하면 子丑으로부터 밖으로 열리지 못하니 穴竅의 氣가 비어 단한다.” 과송평의 해석을 따르면 이 病機는 表陽이 수렴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土로 수렴된 陽이 발생함으로써 形을 충실하게 하고 穴竅를 통하게 해야 하는데, 밖에 머물러 있으므로 면색만 빛이 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병기 해석 방식은 『素問指歸』의 전형적인 서술방식으로 저자가 음양의 조화와 편중에 인한 승강 여부를 生病의 관건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 5) 考察

67) “因而飽食, 筋脈橫解, 腸澀爲痔.”에 대한 주석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21.)

68) “開闔不得, 寒氣從之, 乃生大瘕, 陷脈爲癭, 留連肉腠, 俞氣化薄, 傳爲善畏, 及爲驚駭, 營氣不從, 逆於肉理, 乃生癰腫, 魄汗未盡, 形弱而氣燥, 穴俞以閉, 發爲風癩.”에 대한 주석이다.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19.)

陰陽論은 萬物의 속성에 대한 對比的 인식이며, 동시에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음양은 상호 대립하고 제약하는 가운데 서로의 뿌리가 되어 전환됨으로써 생성 및 변화의 原理가 된다. 韓醫學은 음양론을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한의학 最古 經典인 『黃帝內經』은 陰陽分화를 통해 만물을 파악하고, 天地의 변화규율을 유추해 만물이 化生하는 원리로 삼았다. 특히 인체의 氣血, 表裏, 上下 등의 待對 관계를 설명함과 동시에 循環과 升降을 강조했는데, 이는 氣의 循環運動이 醫學의 주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sup>69)</sup>

앞서 살펴본 세 篇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戈頌平이 『素問指歸』에서 설명한 陰陽理論은 『黃帝內經』의 本義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인체의 生理와 病理를 해석함에 있어 氣液의 升降을 일관된 주제로 삼았다. 十二地支는 승강 원리를 설명하는 주된 틀이었는데, 『傷寒論』의 ‘欲解時’를 통해 연역한 결과를 적용한 것이다. 여타 註家들이 주로 『黃帝內經』內 다른 篇의 내용에 근거해 주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十二地支를 바탕으로 한 설명 방식은 다소 도식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數理的인 규율을 적용하고 공간구조를 통해 승강운동을 구체화한 성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戈頌平은 陰陽의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生病에 있어 陰陽의 분리를 관건으로 삼았고, 上下와 表裏에 편중되어 순환이 파괴되는 것을 경계했다. 때문에 治療를 陰陽偏重의 해소와 관련지어 설명한 것이 자주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과송평이 음양의 실체로 설정한 것은 陰液과 陽氣이다. 陰陽氣液은 만물과 인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서술되었고, 病機를 분석하면서도 음액과 양기를 나누어 설명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음액은 인체의 진액, 혈 등을 포함하며, 운행하는 형질을 총괄하는 개념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氣液의 활동 공간을 半表, 半裏로 설정하고 다시 上下로 구분했는데, 음양의 대상과 공간을 단순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다소 난해한 『黃帝內經』의 이론을 쉽게 설명하려 했던

69) 白裕相. 『黃帝內經』과 『周易』의 陰陽論 比較 - 『繫辭傳』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6(2). p.43.

것으로 생각된다.

세 편의 주석을 살펴보면 陰陽의 일반 규율이나 자연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적은 편이며 인체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黃帝內經』의 전반부 내용이 후반부에 비해 자연의 변화를 자주 다룬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비중이다. 『傷寒論』을 통해 연역한 결과를 하나의 공식처럼 『黃帝內經』 해석에 도입한 점, 陰陽의 대상과 공간을 단순화하여 제시한 점, 인체를 위주로 음양론을 설명한 점은 戈頌平이 臨床醫 입장에서 經典에 접근하면서 나타난 특징일 가능성이 있다. 임상 의사로서 논리의 정합성이나 정교함보다는 실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전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III. 結 論

본 연구는 크게 戈頌平의 생애와 저술, 『素問指歸』에 보이는 陰陽論의 특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 과정 중 밝혀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戈頌平은 1830년 전후에 출생하여 1900년대 초에 사망할 때까지 江蘇省 일대에서 활동한 醫家이다. 주요 의학 경전을 주석하여 『素問指歸』, 『傷寒指歸』, 『金匱指歸』, 『神農本草經指歸』를 남겼다. ‘指歸’는 ‘의지하여 돌아갈 곳을 가리키다’라는 뜻으로 經典 연구를 통해 의학적 난관을 해결하려 했던 방향성을 드러낸다. 그의 복고적 학문 성향은 당시의 지역 의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2. 저서 각각의 편찬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傷寒指歸』가 가장 먼저 완성되었으며 『傷寒論』 연구가 전반적인 학술 사상 성립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종의 저술 서적에 대해 현재 다양한 판본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이 이뤄지고 있다.

3. 『素問指歸』는 『素問』 81篇의 구절 하나하나를 逐句解釋 하는 형태로 저술되었으며, 草書로 주석을

달아 본문과 구분했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배 醫家인 高世栻의 『素問直解』를 부분적으로 인용했다.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十二地支를 기준으로 한 數理를 중시했으며 ‘氣液’, ‘半表上’, ‘半裏下’, ‘太陽大氣’와 같은 독창적인 용어를 통해 經文을 해석했다.

4. 戈頌平은 『素問指歸』에서 陰陽을 ‘氣液’과 결부하여 설명했다. ‘陰陽氣液’은 陽氣와 陰液을 통칭한 것으로, 天地自然과 人體의 陰陽變化 機轉을 설명하는데 활용했다. 陰液은 인체에서 津液, 血, 水, 痰飲을 포괄하며 形質을 가진 것으로, 陽氣의 상대적 개념에 해당한다.

5. 『傷寒指歸』 서두에 기록된 「表裏陰陽六經圖」와 「表裏陰陽六經圖說」은 戈頌平이 의학을 해설하는 주요한 틀이다. 十二地支를 음양변화의 시간적 기준으로 봄과 동시에 인체의 공간으로 해석했다. 또한 氣의 升降을 ‘從子左樞關’와 ‘從午右樞關’의 단계로 구분했다. 升降開闔이 일어나는 단계를 半表와 半裏라는 공간적 구조로 표현했으며, 다시 上下로 구분하여 四象構造를 설정했다.

6. 『素問指歸』에서 陰陽循環을 설명하면서 陽氣의 推動을 강조하여 陽氣爲主의 陰陽觀을 드러냈다. 또한 ‘陰得陽’, ‘陽得陰’과 같은 陰陽調和의 원리를 강조했다.

7. 『傷寒論』을 통해 연역한 도식적 결과를 『黃帝內經』 해석에 도입한 점, 陰陽의 대상과 공간을 단순화하여 제시한 점, 인체를 위주로 음양론을 해설한 점은 戈頌平이 臨床醫 입장에서 경전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戈頌平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 소개하고, 저술의 일부분을 검토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전히 학술 내용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素問指歸』의 경우 臟腑論, 病證論, 經脈理

論에 대한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나머지 저술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특히 『傷寒指歸』는 戈頌平의 학술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연구서로 판단된다. 이어서 清代 『黃帝內經』 연구, 『傷寒論』 연구, 溫病學 연구 및 동시대 조선의학 저술인 『素問大要』, 『東醫壽世保元』과의 비교 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Ge SP. Geshi yanjiucongshu Suwenzhigui. Beijing. hongyigujichubanshe. 2008.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素問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2. Ge SP. Geshi yanjiucongshu Shanghanzhigui. Beijing. hongyigujichubanshe. 2008.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傷寒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3. Ge SP. Geshi yanjiucongshu Jinkuizhigui. Beijing. hongyigujichubanshe. 2008.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金匱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4. Ge SP. Geshi yanjiucongshu Shennongbencaojingzhigui. Beijing. hongyigujichubanshe. 2008.  
戈頌平 撰. 戈氏研究叢書 神農本草經指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5.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 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6.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 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7. Zhang DB, Sun LJ edit.. Tangsongjinwuanmingyiwuanshudacheng.(Wang Bing).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6.  
張登本, 孫理軍 主編. 唐宋金元名醫全書大成 (王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8. Gao SS. Huangdisuwenzhixie. Beijing. Science and Technology Document Publishing House. 2001.  
高世忭. 黃帝素問直解(第三板).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1.
9. Zhang JB. Zhangshi Leijing. Taipei. Wenkuang Publishing Company. 1980.  
張介賓 著. 張氏類經.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0.
10. He SX. Zhongguolidaiyijiachuanl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1.  
何時希 著. 中國歷代醫家傳錄(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1. Yan SY edit.. Zhongguoyijitongkao. shanghai. Shanghaihongyiyadaxue. 1993.  
嚴世芸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藥大學. 1993.
12. Park CG. Jangsanghak. Sunnam. Sungbosa. 2008.  
朴贊國. 藏象學. 성남. 정보사. 2008.
13.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ed. Dongyangulhakdaesajeon.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199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14. Wu KP. Xujiangsuyizhu. Nanjing Zhongyixueyuan xuebao. 1984. 3.  
吳考槃. 續江蘇醫著. 南京中醫學院學報. 1984. 3.
15. Zhang HB. Yangzhou yaoxueshiliao shuyao. Primary Journal of Chinese Materia Medica. 2000. 14(1).  
張厚寶. 揚州藥學史料述要. 基層中藥雜誌. 2000. 14(1).
16. Hao JH, Yan GY. Qingchaoben

- 《Shanghanzhigui》 yanjiu. Journal of Changchun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9. 25(5).  
 郝俊紅, 閔桂銀. 清鈔本《傷寒指歸》研究.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09. 25(5).
17. Zhang FY, et al.. 《Shanghanzhigui》 lueshu.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al Literature. 2014. 2.  
 張方毅 外 3人. 《傷寒指歸》述略. 中醫文獻雜誌. 2014. 2.
18. Wang J. Qingmoyiji Gezhizaijiqi 《Shanghanzhigui》 qianshi.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2. 35(5).  
 王軍. 清末医家戈直哉及其《伤寒指归》浅识. 北京中医药大学学报. 2012. 35(5).
19. Shin SW. A study on the Qi-Fluid mechanism concept of Tae-eumin. Kyunghee univ. 2017.  
 신상원. 太陰人 氣液 機轉 개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20. Kim HT, Yoon CY. A study on Daqirun of Zhang Xichun. J. Korean Medical Classics. 2001. 14(2)  
 金亨泰, 尹暢烈. 張錫純의 大氣論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1. 14(2).
21. Baik YS. Comparison of The Eumyang Theory between Hwangaegyeong and Juyeok - Focused on Gyesajeon-.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2).  
 白裕相. 『黃帝內經』과 『周易』의 陰陽論 比較 -『繫辭傳』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6(2).